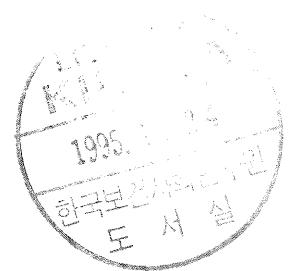


회의자료 94-21

1994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4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94.1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政策懇談會資料

1994年
全國 出產力 咪 家族保健實態調查

1994.1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I. 緒論

1. 調査目的

本調査는 1964年 '全國 家族計劃實態調查'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17번 째에 해당하는 調査로서, 우리나라 婦人們의 出產行態, 人工妊娠中絕 受容實態, 母子保健, 子女觀, 家族計劃實態 등에 관한 資料를 生産·提供함으로써 이 分野의 政策樹立에 寄與코자 하는 데 目的을 둠.

2. 調査對象 및 標本

가. 調査對象

- 1) 家口調査 : 標本地域內의 모든 家口
- 2) 婦人調査 : 調査對象 家口內의 15-49歲 既婚婦人

나. 標本規模

表 I-1. 標本調查區 抽出結果 細部 內譯

資 料	層	調査區數	家口數 ¹⁾	標本比率
人口總調查區	6大都市	55	4,065	1 / 1,353
	其他 市	32	2,228	1 / 1,400
	郡 部	55	3,962	1 / 694
新築아파트	6大都市	3	232	1 / 1,524
	其他 市	4	298	1 / 1,492
	郡 部	2	149	1 / 804
計		151	10,934	1 / 1,123

註 : 1) 人口總調查區의 경우 人口總調查 가구수, 新築아파트의 경우 許可 家口數

表 I-2. 調査結果 家口數 및 婦人數

地域	調査區 數	家口數	調査完了 家口數	完了家口內 婦人數	調査完了 婦人數
市部	94	7,016	6,557 (93.5)	4,633	4,225 (91.2)
郡部	57	4,097	4,056 (99.0)	1,918	1,835 (95.7)
全國	151	11,113	10,613 (95.5)	6,551	6,060 (92.5)

3. 調査時期 : 1994.6-8

4. 調査方法

가. 사전 작성된 調査票를 이용하여 家口訪問 面接調査

나. 調査員 活用

1) 6大都市 및 京畿道 일부 市地域

당원에서 모집한 指導員 및 調査員 活用

2) 中小都市 및 郡部

保健所 및 邑·面 單位 保健要員을 調査員으로 活用

5. 調査內容

가. 家口調査

家口員 事項, 1992.1月 이후 家口내 出生

나. 婦人調査

婦人の 一般的 特性, 妊娠·出産에 관한 事項,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事項,

母子保健 및 授乳에 관한 事項, 家族計劃에 관한 事項, 結婚 및 子女觀에

관한 事項 등

II. 出產力 變化

1. 우리나라의 合計出產率은 1990年 1.6에서 1993年에는 1.75로 上승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先進國과 같은 代置水準以下의 低出產이 持續되고 있음.

- 1984年에 合計出產率이 代置水準인 2.1에 도달한 이후 1987年에는 代置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1.6으로 크게 저하되었음.
- 1991年의 調查에서도 이런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 이번 1994年의 調查 結果에서는 1993年의 合計出產率이 1.75로 上승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일반적으로 代置水準以下로 저하된 출산수준은 政策的 努力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上昇하는 傾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先進國에서의 經驗임.
 - 그러나 우리나라와 함께 新興工業國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低出產의 目標를 달성한 바 있는 싱가폴의 경우는 1980年代 중반에 1.5 수준이하로 내려갔던 合計出產率을 出產 嘉勵策의 전환으로 최근에는 1.8 수준까지 上승시키는데 成功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9年 이후 出產抑制政策으로부터 人口資質 向上政策으로 人口政策의 方向을 전환함으로써 政府支援에 의한 피임보급이 축소되고, 少子女에 관한 弘報 止揚 등 政策與件의 變化와 社會的 雾圍氣의 變化로 인해 出產率이 上昇하는 趨勢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表 II-1. 合計出產率 變動推移 : 1960-1993

年齢	1960	1966	1974	1976	1982	1984	1987	1990	1993
全國	6.0	5.3	3.6	3.2	2.7	2.1	1.6	1.6	1.75
TFR 市部	5.4	3.7	2.9	2.8	2.4	2.0	1.5	1.5	1.75
郡部	6.7	6.5	4.3	3.6	3.3	2.3	2.0	1.9	1.75

資料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年度別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2. 15-44歲 有配偶婦人們의 妊娠중 61.0%만이 正常出產으로 終結되고 있음.

- 15-44歲 有配偶婦人们的 妊娠結果는 61.0%가 正常出產으로, 人工妊娠中絕이 28.3%, 自然流產 8.2%, 死產 0.4%, 現妊娠중이 2.1% 등으로 나타났음.
- 妊娠이 正常出產에 이르지 못하고 身體的條件이나 外的要因에 의해 妊娠을 終結시키는 경우가 36.9%에 이르고 있어 妊娠管理와 불필요한 妊娠의 事前豫防 등으로 妊娠消耗를 최소화하여 母性健康의 增進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示唆해 주고 있음.

表 II-2. 地域別 妊娠結果 分布

妊娠結果	全 國		市 部		郡 部	
	實數	%	實數	%	實數	%
總妊娠數	15,316	100.0	12,384	100.0	2,932	100.0
出生數	9,341	61.0	7,396	59.7	1,945	66.3
死產數	58	0.4	41	0.3	17	0.6
自然流產數	1,253	8.2	1,053	8.5	200	6.8
人工流產數	4,342	28.3	3,620	29.2	722	24.6
現妊娠數	322	2.1	274	2.2	48	1.6

**3. 都市와 農村間에 出產力의 地域差는 最近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地域差가 해소되었음.**

- 市部와 郡部의 合計出產率을 비교하면 1987年에 1.5와 2.0, 1991年에 1.5와 1.9
로 農村이 현저히 높은 地域差를 維持해 왔으나 1993年에는 市·郡 地域 공히
1.75의 水準으로 平準化되었음.
- 이것은 都市化의 持續 및 都農間의 社會·文化的 生活環境 隔差가 좁혀지면서
나타난 現象으로 判斷됨.

表 II-3. 地域別 出產力 差異 : 1984 - 1993

年 齡	市 部				郡 部			
	1984	1987	1990	1993	1984	1987	1990	1993
15-19	8	1	1	2	4	9	9	7
20-24	155	92	54	64	182	156	115	117
25-29	183	165	184	206	200	177	201	136
30-34	53	40	52	62	48	35	41	75
35-39	5	4	6	15	17	13	12	13
40-44	-	4	-	1	2	3	3	2
45-49	-	-	-	-	-	-	-	-
TFR	2.0	1.5	1.5	1.75	2.3	2.0	1.9	1.75

III. 子女觀

1. 有配偶 婦人들이 理想적이라고 생각하는 子女數는 2名 수준에서 거의 固着化되고 있음.

- 1965年에 4名 水準이었던 理想 子女數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어 20年만인 1985 年에 2名 水準으로 半減되었으며 그후 1991年에는 2.1명 水準이었음.
- 本調查에서는 理想子女數가 2.2名으로서 1991年에 비해 0.1名 增加하는 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增加의 幅이 매우 작아 사실상 理想子女數가 增加하고 있다기 보다는 停滯狀態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判斷됨.

表 III-1. 應答婦人の 年齢別 平均理想子女數 變動推移 : 1976-1994
(單位 : 名)

年齢	1976	1982	1985	1988	1991 ¹⁾	1994
15-24	2.4	2.1	1.8	1.8	1.8 ²⁾	2.0
25-29	2.5	2.2	1.9	1.9	1.9	2.1
30-34	2.8	2.5	2.0	2.0	2.1	2.2
35-39	3.0	2.6	2.1	2.0	2.2	2.3
40-44	3.2	2.9	2.2	2.1	2.3	2.3
全體	2.8	2.5	2.0	2.0	2.1	2.2

註 : 1) 1991年の 경우는 有配偶 婦人이 아니라 既婚婦人(離婚, 死別婦人 包含)의 理想子女數임.

2) 15-19歲 婦人の 경우 1.9名, 20-24歲 婦人の 경우 1.8名임.

2. 男兒選好思想은 그 強度는 弱化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社會에 뿌리깊이 殘存하고 있음.

- ‘아들이 꼭 필요하다’, 혹은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등 男兒에 대한 選好를 가진 婦人의 比率은 1991年에는 71.2%였으나 本調查에서는 60.6%로 약 10% 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아직도 60%에 달하는 부인들이 아들이 필요하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는 등 男兒選好가 강하게 殘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子女를 1名 두고 있는 婦人 가운데 그 子女가 아들인 경우는 50.7%가, 딸인 경우는 64.1%가 追加子女를 원하고 있음.
- 2名의 子女를 두고 있는 婦人중에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2~4%만이 追加子女를 計劃하고 있는데 반해 딸만을 가진 경우는 20.4%가 子女를 더 갖겠다고 함으로써, 아들을 바라는 욕망이 아직도 상당수준 상존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음.

表 III-2. 男兒選好를 가진 婦人¹⁾의 比率 : 1991年과의 比較
(單位 : %)

年 度	1991 ²⁾	1994
全 國	71.2	60.6
市 部	69.1	57.7
郡 部	79.5	74.2

註 : 1) ‘아들이 꼭 필요하다’는 婦人과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婦人

2) 1991年的 경우는 既婚婦人(離婚, 死別婦人 包含)을 對象으로 하였음.

敎育水準, 地域, 敎育水準別 比率에서는 45-49歲 婦人도 포함되어 있음.

表 III-3. 應答婦人の 現存子女의 性構成別 追加子女 出產豫定 態度
百分率 分布

(單位 : 名)

現存子女數	‘낳겠다’	‘낳지않겠다’	‘생각중이다’	計 (實數)
0名(없음)	92.9	5.0	2.1	100.0(426)
1名				
1男	50.7	39.6	9.7	100.0(700)
1女	64.1	25.8	10.1	100.0(503)
2名				
2男	4.0	92.5	3.5	100.0(756)
2女	20.4	70.2	9.3	100.0(480)
1男1女	2.3	95.5	2.3	100.0(1,518)
3名				
3男	3.0	97.0	-	100.0(50)
3女	8.0	86.3	5.0	100.0(72)
1男2女	0.5	98.5	1.0	100.0(312)
2男1女	0.3	98.5	1.2	100.0(172)
4名以上	1.6	97.9	0.5	100.0(180)
計	24.2	71.1	4.7	100.0(5,170)

3. 妊娠中에 胎兒의 性鑑別을 해본 經驗이 있는 婦人의 比率이 14.5%에 달하고 있음.

- 胎兒의 性鑑別 動機가 妊娠婦의 자진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診察過程에서 醫師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알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性鑑別 經驗婦人 全員이 選擇的 出產을 하기 위해 意圖的으로 性鑑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실제로 性鑑別 결과, 胎兒가 男兒인 경우는 3.2%만이 人工妊娠中絕을 한데 반해 女兒인 경우는 17.4%가 人工妊娠中絕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男兒選好로 인한 選擇的 人工妊娠中絕이 널리 行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證明해주고 있음. 男兒選好觀의 緩和 내지 拂拭을 위한 努力과 더불어 胎兒의 性鑑別 防止를 위한 法的 道德的 是正 努力이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임.

表 III-4. 產前 胎兒의 性別検査 結果別 妊娠終結 狀態
(單位 : %)

胎兒性別 検査結果	正常出生 ¹⁾	死產	自然流產	人工妊娠 中絕	現妊娠中	計(實數)
男兒 ²⁾	94.6	0.3	0.2	3.2	1.8	100.0(709)
女兒 ³⁾	81.1	0.3	-	17.4	1.3	100.0(598)
全體	88.4	0.3	0.1	9.7	1.6	100.0(1,308) ⁴⁾

註 : 1) (正常出生 + 死產)인 경우 包含 : 雙生兒
 2) (男兒+男兒), (男兒+女兒)의 경우 包含 : 雙生兒
 3) (女兒+女兒)의 경우 包含 : 雙生兒
 4) 胎兒性鑑別을 한 妊娠의 數

表 III-5. 胎兒 性別檢查 經驗 回數 分布
(單位 : %)

區 分	無經驗	有 經 驗			計(實數)
		1回	2回以上	小計	
地 域					
全 國	85.5	11.5	3.0	14.5	100.0(5,182)
市 部	85.1	11.8	3.1	14.9	100.0(4,277)
郡 部	87.5	10.1	2.5	12.5	100.0(905)
年 齡					
15-24	86.0	12.2	1.8	14.0	100.0(315)
25-29	78.2	17.5	4.3	21.8	100.0(1,143)
30-34	80.7	14.6	4.7	19.3	100.0(1,487)
35-39	89.4	8.4	2.2	10.6	100.0((1,343))
40-44	96.8	2.9	0.3	3.2	100.0(893)
教育水準¹⁾					
國卒以下	95.1	4.1	0.8	4.9	100.0(592)
中學校	91.6	6.4	1.9	8.4	100.0(1,137)
高等學校	83.1	13.4	3.4	16.9	100.0(2,556)
大學以上	78.1	17.2	4.6	21.2	100.0(893)

註：1) 無應答 4名 除外

IV. 人工妊娠中絶實態

1. 有配偶 婦人們의 人工妊娠中絶率은 1970年代 末에 絶頂에 올랐다가 1980年代 以後 전반적으로 減減하면서 24歳 以下の 低齡層에서 크게 增加하는 趨勢였으나, 1993年에는 젊은 年齡層의 增加趨勢가 꺾임으로써 크게 減少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

- 1978年 人工妊娠中絶率은 20~24歳 婦人의 경우 70(婦人 1,000名當)이었으나 계속 增加하여 1990年에는 186까지 上昇했다가 1993年에는 105 水準으로 크게 鈍化되었음.
- 25~29歳의 年齡層에서도 156에서 1987年에 103까지 떨어졌다가 1990年에는 다시 112로 올라가는 樣相이었으나 1993年에는 94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30歳 以上的 高齡層 婦人们的 경우는 대체로 1980年代 후반부터 큰 幅의 減少 趨勢가 持續되고 있음.
- 이와 같은 人工妊娠中絶의 減少는 지극히 바람직하고 다행한 現象이라 할 수 있음. 低出產 時代에 있어서 人口資質 向上을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정확한 避妊에 의한 不願妊娠 防止를 통해 人工妊娠中絶의 素地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主要事業 課題의 하나로 指摘되고 있는 이때, 이러한 變化는 앞으로의 人口資質 事業의 展望을 밝게 해 주는 要素가 될 것으로 보임.

表 IV-1. 20-44 歲 有配偶 婦人의 年齡別 人工妊娠中絕率의 變動推移
: 1976-1994

(單位 : 婦人 1,000名當)

地域・年齢	1975	1978	1984	1987	1990	1993
全 國						
20-24	63	70	91	102	186	105
25-29	86	156	146	103	112	94
30-34	158	148	115	71	60	63
35-39	153	156	40	29	21	25
40-44	75	54	20	7	6	1
市 部						
20-24	95	88	98	102	187	104
25-29	99	186	162	108	116	99
30-34	200	172	130	76	61	65
35-39	178	164	40	28	22	25
40-44	78	65	21	6	4	-
郡 部						
20-24	28	51	77	100	181	106
25-29	67	108	100	89	96	67
30-34	106	114	75	55	52	57
35-39	128	147	41	31	22	22
40-44	73	44	19	10	11	4

2. 有配偶 婦人의 人工妊娠中絕 經驗率은 1991年 54%에서 1994年 49%로 減少하였으나,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婦人們이 人工妊娠中絕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음.

- 年齡別 人工妊娠中絕率의 低下傾向과 더불어 人工妊娠中絕 經驗率도 1991年 54%에서 1994年에는 49%로 근소하게나마 減少하는 趨勢를 보였음.
- 그러나 아직도 有配偶 婦人의 절반이 人工妊娠中絕을 經驗하고 있다는 事實은 避姪의 適期 受容, 정확한 使用 등 改善해야 할 問題點이 많음을 間接的으로 시사해 주고 있음.

表 IV-2. 15-44歲 有配偶 婦人의 人工妊娠中絕 經驗率의 變動推移
: 1976-1994

(單位 : %)

婦人特性	1976	1979	1985	1988	1991 ¹⁾	1994
地 域						
全 國	39	48	53	52	54	49
市 部	46	53	55	54	55	49
郡 部	29	40	48	47	49	49
年 齡						
15-24	16	19	22	27	29	21
25-29	27	36	42	41	40	36
30-34	46	54	61	57	55	51
35-39	50	59	63	63	60	58
40-44	45	56	67	62	65	60
平均人工妊娠 中絕回數(回)	0.9	1.1	1.1	1.0	1.1	0.8

註 : 1) 15-49歲 有配偶 婦人을 對象으로 함.

3. 斷產이나 터울조절을 위해 人工妊娠中絕을 受容한 婦人이 69.5%로서, 아직도 多은 婦人們이 人工妊娠中絕을 家族計劃 目的으로 受容하고 있음.

- 人工妊娠中絕 經驗婦人の 受容한 理由가 58.4%는 子女를 더 원치 않기 때문이었고 11.1%는 터울조절을 위해서였음. 결과적으로 69.5%가 家族計劃을 目的으로 人工妊娠中絕을 하였음.
- 斷產을 目的으로 人工妊娠中絕을 受容한 比率은 郡部가 69.2%로서 市部의 5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水準을 보였음. 人工妊娠中絕을 하게 된 妊娠의 대부분이 不願妊娠임을 감안해 볼 때, 不願妊娠을 防止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農村婦人們이 都市婦人們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表 IV-3. 마지막 人工妊娠中絕 理由 및 施術場所 百分率 分布

區 分	市 部	郡 部	全 國
理 由			
子女不願	56.1	69.2	58.4
터울조절	11.7	8.5	11.1
姪婦의 健康상	10.6	4.9	9.7
태아이상	5.4	3.7	5.1
婚前妊娠	3.7	1.8	3.3
家庭問題	1.9	0.7	1.7
經濟的 困難	3.7	3.5	3.7
胎兒가 팔이므로	1.7	1.8	1.7
其他	5.2	5.8	5.3
計	100.0	100.0	100.0
(實數)	(2,102)	(440)	(2,541) ¹⁾

註 : 1) 無應答 7名 除外

4. 人工妊娠中絶을 經驗한 婦人중 16.8%의 婦人們이 人工妊娠中絶後 副作用을 經驗하였음.

- 人工妊娠中絶을 받은 후에 경과가 ‘나쁜 편’이었다는 婦人이 12.7%, ‘아주 나빴다’는 婦人이 4.1%로 16.8%의 婦人们이 人工妊娠中絶後의 經過가 나빴던 것으로 應答하였음.
- 경과가 나빴던 婦人们的 주된 副作用은 下血, 염증, 부종 등과 같이 현저한 증상 외에도 몸이 허약해 졌거나 특정부위가 마비되었다거나 하는 不確實한 症勢들도 있었음.

表 IV-4. 마지막 人工妊娠中絶後의 경과

(單位 : %)

人工妊娠中絶後의 滿足度	市部	郡部	全國
경과가 아주 좋았다	22.1	11.2	20.2
경과가 좋은 편이었다	61.4	70.5	63.0
경과가 나쁜 편이었다	12.9	12.0	12.7
경과가 아주 나빴다	3.6	6.2	4.1
計	100.0	100.0	100.0
(實數)	(2,102)	(441)	(2,543) ¹⁾

註 : 1) 無應答 5名 除外

V. 母子保健實態

1. 우리나라 妊産婦들은 거의 대부분이(99.2%) 產前檢診을 받고 있어 母性健康管理 水準이 크게 向上된 것으로 밝혀졌음.

- 1985年의 調査에서는 婦人們의 最終兒에 대한 產前診察率이 82.4%였고 1988年 調査 結果에서는 88.5%였던 것이 1994年에는 99.2%로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產前 진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85年 및 1988年의 경우 부인의 居住地域, 教育水準, 年齡 등 特性에 따라 產前 診察率에 큰 差異를 보였으나 本調査에서는 그러한 特性別 差異가 거의 解消되어 階層間 母性健康管理 行態가 거의 平準化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表 V-1. 應答婦人の 主要特性別 1990年 以後 出生兒중 最終兒의 出生順位別 產前受診率

(單位 : %)

特性	最終兒의 出生順位			全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地 域				
全 國	99.7	99.1	97.6	99.2
市 部	99.8	99.3	99.1	99.5
郡 部	99.0	97.8	94.0	97.6
出產時 母의 年齡				
24세이하	99.8	99.1	93.2	99.4
25-29	99.7	99.6	96.0	99.5
30세이상	99.5	97.9	98.8	98.4

2. 妊産婦들의 平均 產前診察 回數는 10회이고, 첫 번째 診察은 대부분이 妊娠 3個月 以內에 받고 있음.

- 첫 번째 診察을 받은 時期는 妊娠 2個月 以內에 68.1%, 3個月 以內에 22.3%로서 90% 以上이 3個月 以內에 產前診察을 받고 있음.
- 婦人 1名當 平均 10回의 產前診察을 받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以上 產前診察을 받고 있으며, 婦人 特性別 診察回數는 郡部보다 市部, 高齡者보다 年少層에서, 셋째나 둘째 아이보다 첫째 아이에서, 그리고 學歷이 높을수록 產前診察回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表 V-2. 產前診察 受診婦人の 主要特性別 첫 產前受診 時期

特 性	첫 產前 受診時期						計(實數)	平均 產前 診察 回數
	2個月 以內	3個月	4個月	5個月	6個月	7個月 以後		
地 域								
全 國	68.1	22.3	4.3	3.3	1.0	1.0	100.0(1,914) ¹⁾	10.0
市 部	69.9	21.3	3.7	3.2	1.0	0.9	100.0(1,612)	10.1
郡 部	58.4	27.4	7.7	3.9	1.2	1.5	100.0(302)	9.1
出産時 母의 年齡								
24歲以下	65.6	24.9	4.8	3.0	0.7	0.9	100.0(368)	10.4
25-29歲	70.8	20.0	3.7	3.1	1.2	1.1	100.0(1,091)	10.0
30歲以上	63.8	25.5	5.4	3.9	0.6	0.8	100.0(454)	9.7
最終兒의 出生順位								
첫째아	76.0	19.4	2.3	1.1	0.4	0.7	100.0(795)	11.2
둘째아	64.7	23.0	5.5	4.6	1.3	0.9	100.0(965)	9.3
세째아이상	49.0	32.4	6.7	6.6	2.2	3.2	100.0(153)	8.0
教育水準								
國卒以下	52.4	14.9	10.7	4.3	10.3	7.4	100.0(51)	7.9
中學校	58.6	29.4	5.8	4.2	1.2	0.9	100.0(229)	8.7
高等學校	67.7	23.0	4.4	3.2	0.9	0.9	100.0(1,121)	10.0
大學以上	74.7	18.5	2.8	3.1	0.3	0.6	100.0(512)	10.8

註 : 1) 無應答 3名 除外

3. 產前診察에서 행해지는 檢查중 超音波 檢查는 1988년 37.5%에서 1994年 97.6%로 증가하여 이제 普遍化되었음.

- 產前診察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검사는 血壓測定, 血液検査, 小便検査, 體重測定이었으나 이제는 超音波 檢查도 97.6%의 婦人이 받고 있어 필수검사項目으로서 거의普遍化되어 있음.
- 1988年까지만 해도 37.5%에 불과했던 超音波 檢查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地域的 差異나 教育水準 등에 의한 差異도 거의 없어 超音波 檢查의 보급이 全國的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줌.

表 V-3. 1990年以後 出生兒중 最終兒에 대한 產前診察 受診婦人の
產前診察 受診時의 主要検査種類別 受檢率

特性	血壓 測定	血液 検査	小便 検査	體重 検査	超音波 検査	양수 검사	용모막 검사
地 域							
全 國	98.1	89.1	96.8	97.6	97.6	4.7	0.3
市 部	97.9	89.4	97.1	97.7	97.9	5.3	0.3
郡 部	98.9	86.7	95.0	97.2	96.3	1.9	0.4
教育水準							
國卒以下	100.0	74.6	85.6	90.1	92.6	-	-
中學校	97.5	80.8	96.8	96.9	95.4	5.4	0.6
高等學校	97.8	88.8	96.9	97.5	97.6	5.0	0.3
大學以上	98.8	94.4	97.8	99.1	99.1	4.3	0.4

4. 1988年 우리나라 婦人們의 施設分娩率은 87.8% 水準이었으나, 本調查에서는 98.8%로서 거의 모든 分娩이 施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3年 이후 出生兒 가운데 最終兒의 分娩은 96% 이상이 病院에서 이루어졌고 助產所와 保健所의 分娩이 각각 2.0%와 0.7%로 거의 99%의 分娩이 안전한 施設分娩으로 이루어졌음.
- 1988年까지도 87.8% 水準이었던 施設分娩率이 몇 년 사이에 거의 완벽한 水準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表 V-4. 應答婦人の 主要特性別 1993年 이후 出生兒중 最終兒의 分娩場所
百分率 分布

特性	綜合病院	病院	醫院	助產所	保健所 ¹⁾	其他 ²⁾	計(實數)
地 域							
全 國	31.8	21.3	43.1	2.0	0.7	1.2	100.0(1,932) ³⁾
市 部	32.5	21.5	43.2	1.8	0.4	0.7	100.0(1,622)
郡 部	28.1	20.2	42.6	3.0	2.2	3.9	100.0(310)
出産時 母의 年齢							
24歳以下	30.8	19.1	45.2	1.8	1.2	1.9	100.0(371)
25-29歳	31.6	21.7	43.1	2.1	0.6	0.9	100.0(1,099)
30歳以上	33.0	22.0	41.3	1.8	0.4	1.5	100.0(461)
教育水準							
國卒以下	24.8	18.5	46.3	1.2	0.9	8.3	100.0(55)
中學校	20.0	18.8	52.5	4.5	1.8	2.5	100.0(233)
高等學校	28.8	20.7	46.8	2.2	0.5	1.0	100.0(1,130)
大學以上	44.4	24.0	30.4	0.4	0.4	0.3	100.0(513)

註 : 1) 保健所, 母子保健센타, 保健支所

2) 家庭 및 其他場所

3) 無應答 8名 除外

5. 1991年 帝王切開 分娩率은 17.3%에 不過하였으나 本調査에서는 31.5%로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0年 以後 出生兒 가운데 最終兒의 分娩은 31.5%가 帝王切開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1988年 11.9%, 1991年 資料 17.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帝王切開에 의한 分娩은 기왕에 帝王切開를 한 경우, 高齡難產인 경우, 기타 正常分娩이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一般的인 現象인데, 이러한 事由가 특히 最近에 와서 急增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醫師나 妊產婦도 어떤 理由에서이던 帝王切開術을 選好하는 풍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表 V-5. 1990年 이후 出生兒중 最終兒 出產時 母의 年齡別 最終兒의
出生順位別 分娩 形態 및 自然分娩時의 狀態 百分率 分布

特 性	自然分娩	帝王切開手術	計(實數)
地 域			
全 國	68.5	31.5	100.0(1,932) ¹⁾
市 部	68.1	31.9	100.0(1,622)
郡 部	70.8	29.2	100.0(310)
最終兒의 出生順位			
첫째아	63.4	36.6	100.0(797)
둘째아	70.4	29.6	100.0(977)
세째아이상	82.7	17.4	100.0(157)
教育水準			
國卒以下	67.7	32.3	100.0(55)
中學校	65.8	34.2	100.0(233)
高等學校	68.3	31.7	100.0(1,130)
大學以上	70.3	29.7	100.0(513)

註 : 1) 無應答 7名 除外

6. 生後 6個月 때의 母乳 授乳率은 22.4%로 나타났으며, 母乳와 人工乳를
並行한 경우는 8.5%로 나타났음.

- 1990年 以後 出生兒 중 最終兒에 대한 生後 6個月 때의 母乳授乳率은 22.4%
이며, 모유와 인공유 수유를 병행한 경우는 8.5%, 그리고 인공유 수유률은
69.2%로 나타났음.

表 V-6. 最終兒에 대한 生後 6個月 때의 授乳様相 百分率 分布

지역	母乳	병행(母乳+人工乳)	人工乳	計
전국	22.4	8.5	69.2	100.0
시부	20.2	8.3	71.6	100.0
군부	33.6	9.4	57.0	100.0

7.豫防接種率은 全般的으로 높은 편이지만, 新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
検査率은 비교적 낮은 水準임.

- BCG, DPT, 간염, 홍역, MMR 등 대부분의豫防接種比率이 95%水準을 넘고 있는데 비해 精神薄弱兒의 發生豫防을 위한 先天性代謝異常検査를 받은比率은 35.7%로 저조한 편임. 14,000원 정도의 검사료를 自費負擔케 하는 方法으로라도 모든新生兒들이 檢查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先天性代謝異常에 의한 精神遲滯로부터 保護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表 V-8. 應答婦人の 教育水準別 1990年 이후 出生兒중 最終兒에 대한
豫防接種 種類別 接種率

特性	BCG	간염	DPT / 소아마비			홍역	MMR	DPT/ 소아마비 추가접종
			1차	2차	3차			
全 國								
國卒以下	99.1	90.4	85.8	95.6	94.9	76.3	86.2	87.7
中學校	98.2	97.1	94.1	99.5	98.3	92.4	94.5	89.3
高等學校	98.4	99.5	95.5	99.6	99.8	94.4	97.0	93.8
大學以上	98.8	99.6	95.7	99.6	99.9	96.9	97.8	94.4
全體	98.5	98.9	95.1	99.5	99.5	94.3	96.6	93.2
市 部								
國卒以下	100.0	89.5	84.1	94.9	93.6	91.5	89.0	87.9
中學校	98.5	98.3	95.8	99.3	98.2	94.4	94.8	91.3
高等學校	98.9	99.5	95.6	99.6	99.8	95.1	97.1	94.2
大學以上	98.7	99.6	95.5	99.7	100.0	97.7	97.6	94.4
全體	98.8	99.2	95.3	99.5	99.5	95.7	96.8	93.8
郡 部								
國卒以下	97.4	91.9	88.7	96.9	96.7	60.1	83.6	87.5
中學校	97.4	93.2	88.4	100.0	98.8	86.1	93.5	82.3
高等學校	96.4	99.3	94.9	99.7	100.0	91.4	96.8	92.1
大學以上	100.0	98.7	97.2	98.5	98.3	86.0	100.0	94.7
全體	97.1	97.7	93.7	99.4	99.4	87.5	95.6	90.3

表 V-9. 應答婦人의 特性別 1990年以後 出生兒중 最終兒의 出產後
선천성 代謝異常検査與否 百分率 分布

특 성	하였다	하지않았다	잘모르겠다	計 (實數)
地 域				
全 國	35.7	49.6	14.7	100.0(1,931) ¹⁾
市 部	35.7	49.9	14.4	100.0(1,621)
郡 部	35.8	48.0	16.2	100.0(310)
出產時 母의 年齡				
24歲以下	36.6	48.7	14.7	100.0(371)
25~29歲	33.9	51.6	14.4	100.0(1,099)
30歲以上	39.3	45.6	15.1	100.0(460)
最終兒의 出生順位				
첫째아	41.9	44.1	14.0	100.0(797)
둘째아	31.8	53.4	14.8	100.0(976)
세째아이상	28.6	54.1	17.4	100.0(157)
教育水準				
國卒以下	33.8	52.1	14.1	100.0(55)
中學校	30.6	54.6	14.8	100.0(233)
高等學校	33.5	50.0	16.5	100.0(1,130)
大學以上	43.2	46.2	10.6	100.0(512)

註 : 1) 無應答 8名 除外

VI. 避姪實態

1. 有配偶 婦人們의 避姪實踐率은 77.4%로 1991年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1988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거의 상한 수준 가까히 維持되고 있음.

- 15-44歲 有配偶 婦人의 77.4%가 1994年 현재 避姪을 實踐하고 있음.
- 合計出產率이 代置水準이었던 1985年에 70.4%이던 것이 合計出產率이 1.6으로 저하된 1988年에는 77.1%까지 급증한 避姪實踐率은 1991년에는 79.4%까지 올라간 바 있음.
- 現 避姪實踐率 수준은 91年보다 2% 포인트 낮아졌으나 아직 거의 上限線으로 보여지는 80% 수준에 가까우며, 88年보다는 높은 수준임.
- 避姪實踐率의 저하요인은 政府의 避姪普及 支援 특히, 不姪施術의 普及이 크게 減縮된 데 다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料됨.

2. 政府事業에 의한 避姪普及 支援의 縮小로 避姪實踐 樣相은 不姪手術受容率이 減少하고 一時的 避姪方法에 의한 實踐率이 增加하고 있음.

- 1976年이래 급증일로였던 不姪施術 受容率이 1988年에 有配偶 婦人의 48.2% 까지 不姪을 受容했었으나 1989年 이후 계속 政府普及 物量을 減縮해 온 영향으로 1991年에는 47.3%로 약간 줄었고, 1994年에는 다시 40.2%로 크게 줄어들었음.
- 반면에 政府의 不姪施術 普及의 축소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子宮內裝置는 다소 증가하고 콘돔은 1988年 및 1991年의 10.2%에서 1994年에는 14.3%로 크게 增加하는 變化를 일으켰음.

3. 都市 農村間의 出產率이 平準化된 것과 같이 都農間의 避姪實踐率도 1990年代에 와서 平準化가 定着되어 가고 있음.

- 都市地域의 避姪實踐率이 높은 것은 常識化되었으나 1991年부터 오히려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음. 즉 市部와 郡部間의 避姪實踐率의 차이는 1976年の 경우 48.0%와 40.2%로 都市가 월등히 높았고 1988年까지만 해도 77.7%와 75.5%로 都市가 2.2% 포인트 높았으나 1991年에는 79.3%와 80.0%, 1994年에는 77.1%와 78.4%로 오히려 農村地域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바뀌었음.
- 이는 都市에 避姪을 요하지 않는 젊은 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避姪 受容率이 그만큼 낮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都高農卑의 통령화된 實踐率의 차이가 무너지게 된 것은 出產率에서의 都·農間 차이가 없어진 現象과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4. 우리나라 夫婦들의 避姪方法에 대한 嗜好度는 婦人們의 地域과 學歷 등特性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음.

- 有配偶 婦人の 28.6%가 卵管手術을 受容하고 있으나 都市의 경우는 26.8%, 農村 경우는 37.1%로 農村에서 卵管手術을 보다 選好하는 반면에 콘돔의 경우는 반대로 都市 15.8%, 農村 7.4%로 都市 부인들이 보다 選好하고 있음.
- 教育水準에 따라서 學歷이 낮을 수록 卵管手術은 學歷이 높을 수록 콘돔 사용을 더 選好하는 傾向이 있어, 大學 以上의 학력을 지닌 부인은 10.9%만이 卵管手術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國卒 以下의 학력소지 부인들은 56.4%가 수용했고 반대로 콘돔은 國卒 以下에서 3.3%인데 반해 大卒 以上에서는 27.7%의 높은 使用率을 보이고 있음. 젊은 층 부인들의 학력이 높기 때문에 一時的方法으로서 콘돔을 選好하는데 비롯된 결과임.

表 VI-1. 15-44歲 有配偶婦人の 主要特性別 避妊実践率 變動推移
:1976-1994

(単位 : %)

婦人特性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地 域							
全 國	44.2	54.5	57.7	70.4	77.1	79.4	77.4
市 部	48.0	55.1	58.7	71.5	77.7	79.3	77.1
郡 部	40.2	53.6	55.7	67.7	75.5	80.0	78.4
避妊方法							
卵管手術	4.1	14.5	23.0	31.6	37.2	35.3	28.6
精管手術	4.2	5.9	5.1	8.9	11.0	12.0	11.6
子宮内装置	10.5	9.6	6.7	7.4	6.7	9.0	10.5
吃的避妊薬	7.8	7.2	5.4	4.3	2.8	3.0	1.8
コンドーム	6.3	5.2	7.2	7.2	10.2	10.2	14.3
其他	11.3	12.1	10.3	11.0	9.2	9.9	10.6

表 VI-2. 應答婦人の 主要 特性別 避妊方法別 避妊実践率

(単位 : %)

婦人特性	現実践								現非実践	計(N)
	小計	卵管 手術	精管 手術	子宮内 装置	吃的 避妊薬	コンド ーム	殺精剤	月経 週期法		
地 域										
全 國	77.4	28.6	11.6	10.5	1.8	14.3	1.3	7.3	2.0	22.6 100.0(5,183)
市 部	77.1	26.8	11.6	10.3	1.8	15.8	1.3	7.4	2.2	22.9 100.0(4,277)
郡 部	78.4	37.1	11.6	11.4	1.8	7.4	1.2	6.7	1.2	21.6 100.0(906)
教育水準										
國卒以下	85.0	56.4	12.5	6.1	1.4	3.3	1.0	3.5	0.9	15.0 100.0(592)
中學校	81.7	43.6	12.4	9.5	3.3	6.2	0.9	4.4	1.3	18.3 100.0(1,137)
高等學校	74.8	21.6	11.9	11.9	1.6	15.9	1.5	8.3	2.2	25.2 100.0(2,557)
大學以上	74.2	10.9	9.3	10.5	0.6	27.7	1.1	10.8	3.2	25.8 100.0(893)

5. 아직도 婦人們의 避姪器具와 에이즈 豫防에 대한 知識水準이 낮음.

- 성 행위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에이즈 豫防을 위한 방법이라는 質問에 그렇다고 읊을 대답을 한 부인은 53.1%로 거의 반에 가까운 부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女性이 먹는 避姪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이즈나 性病豫防을 위해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質問에도 66.4%의 부인만이 그렇지 않다는 올바른 응답을 하였음.
- 避姪器具에 대한 부인들의 不正確한 知識은 피임방법을 오용할 소지와 失敗妊娠을 할 우려도 높을 뿐 아니라 불치의 공포로 擴散의 危險이 높은 에이즈에 대한 豫防的 對應力에 큰 허점이라 할 수 있음.
- 먹는 避姪藥과 콘돔은 가장 기본적인 피임방법이고 특히 콘돔은 유일한 에이즈 豫防器具이므로 積極的인 避姪教育과 에이즈 豫防을 포함한 保健教育의 強化가 要求됨.

表 VI-3. 콘돔에 관한 一般的 認識

(單位 : %)

區 分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計 (實數)
·에이즈나 다른 성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관계 때마다 매번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53.1	29.1	17.8	100.0(5,177) ¹⁾
·여성이 먹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에이즈나 성병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17.4	66.4	16.2	100.0(5,177) ¹⁾
·콘돔은 남녀 모두를 성병으로 부터 보호한다	57.8	29.0	13.2	100.0(5,172) ²⁾

註 : 1) 無應答 6名 除外

2) 無應答 11名 除外

VII. 結論

이상 1994年度 家族保健 實態調查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음.

첫째,

- 1987年 이후 1990年代 초에 이르기까지 1.6 水準에 정체되었던 合計出產率이 1.75로 0.15의 上昇을 이룩한 것은 政府事業에의 避姪普及 支援 縮小와 出產抑制 誘導性 弘報止揚 등 社會的 雾圍氣 변화에 기인된 것임.
- 이러한 결과는 일부 先進國에서의 出產獎勵策에도 불구하고 出產率의 上昇에 效果를 보지 못하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政策的 努力에 따라 상당 水準의 出產水準 調節 可能性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음.

둘째,

- 政府의 避姪普及支援 중 특히 不姪施術의 普及이 1989年 以後 급속도로 감축되어 1980年代 중반에 연간 40萬 件이던 것이 1994年에는 27,000件으로 그 15분의 1 밖에 안되었지만 避姪實踐率은 1988年 수준을 상회하는 거의 上限水準을 維持하고 있음.
- 다만 女性不姪施術이 줄어 든 대신에 콘돔 등 一時的 方法의 相對的 增加를 가져오는 避姪方法別 受容樣相變化를 일으키고 있어 우리는 民間 主導型 自律的 避姪普及의 可能性을 염 볼 수 있음.
- 한편, 그 동안 婦人們이 選好해 온 政府支援 女性不姪施術이 自費負擔에 의한 自律的 避姪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있음은 民間部門의 避姪手術 서비스 체제 개선과 더불어 低所得層을 위한 일정수준의 政府支援 施術普及의 불가피성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避姪普及 서비스는 민간주도형 형태로 계속 발전시키되 政府의 支援이 一定水準으로 持續되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 政府의 不妊施術 普及物量의 축소로 女性不妊術의 受容率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人工妊娠中絕率이 크게減少되고 있음은 量보다 質的 프로그램을 지향해 온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그만큼 避妊實踐의 內實이 다져지고 있다는 증거로 料됨.
- 그러나 현재의 人工妊娠中絕率은 높은 避妊實踐率에 비해 아직도 수긍하기 어려운 큰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음. 家族計劃의 質的 改善을 위한 弘報教育, 對民指導, 相談 등의 서비스改善에 대한 투자가 종래의 避妊普及 支援을 위한 직접비용 투자 이상으로 強化되어야 한다는 점이 政府關係當局에 의해 이해되어야 할 것임.

넷째,

- 최근에 低出產의 여파로 少子女 내에서의 男兒選好 影響은 胎兒性鑑別에 의한 선택적 人工妊娠中絕이라는 현대적 醫療技術의 오남용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出生性比의 不均衡이란 자연선택과 배치되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음.
- 균형된 出生性比로 복귀시키기 위해 男兒選好觀을 완화 내지 拂拭시키기 위한 새로운 社會支援 施策의 開發 施行과 法制化된 기준 性鑑別 統制法規의 施行 強化 및 大眾弘報와 더불어 특히 醫療人에 대한 積極的 指導가 強化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 母子保健 側面에서 妊產婦의 대부분이 產前診察을 平均 10回 정도 받고 安全施設 分娩을 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豫防接種도 거의 모든 종류에서 대부분 받고 있으므로 최근에 크게 발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女性의 就業 등 與件 變化로 母乳 授乳率은 종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은 母乳授乳勸獎 캠페인과逆行되는 현상인 바 지속적인 改善의 努力이 要求됨. 病醫院에서의 醫療人們에 의한 妊娠婦 指導, 一般啓蒙 弘報는 물론 就業女性들의 職場內 탁아 시스템 도입 등 女性福祉 分野에서도 持續的 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임.

- 그 외에 先天性 精神 薄弱兒의 發生豫防을 위한 新生兒의 先天性代謝異常検査는 아직도 約 36% 수준의 저조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對民弘報의 強化와 더불어 同 檢査의 義務化 등 조치로 低所得 脆弱階層을 제외한 모든 對象은 自費負擔으로 실시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講究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새로운 人口政策 方向定立 및 政策目標의 設定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人口 및 家族保健事業의 發展을 이룩함으로써 世界化를 指向하는 國家發展 目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임.

“1994年度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政策懇談會 會議 結果報告

1. 日時 : 1994. 12. 28日(水)
 2. 場所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小會議室
 3. 參席人員 : 13名
-

所屬 및 職位		姓 名
保健福祉部	생활보건과 과장	주기종
"	사무관	한기춘
"	"	이재란
大韓家族計劃協會	사무총장	전종기
"	사업부장	신동진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복지정책연구실장	정기원
"	인구정책연구실장	이상영
"	선임연구위원	정경배
"	선임연구위원	홍문식
"	연구위원	문현상
"	"	임종권
"	책임연구원	장영식
"	주임연구원	오영희

4. 會議 内容 要約

- 1) 本 研究事業 責任者인 洪文植 先任研究委員으로부터 “1994年 度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結果에 대한 要約報告가 있 었음(別添 會議資料 參照).
- 2) 통상 報告書가 發刊되기까지 1年6個月以上 소요되었으나 이 번에는 調査가 늦게 착수되었음에도 1년이란 短期間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진의 많은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간주 됨.
- 3) 人口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資料가 不足한 狀況에서 이번 出 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資料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部門이 좀더 면밀히 檢討 되었으면 한다는 見解가 提起 되었음.
 - 合計出產率이 1990年 1.6수준에서 1993年에는 1.75수준으로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 上昇要因이 政策에 의한 것인지 또 는 다른 要因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人口政策의 Key가 될 수 있을 것임.
 - 子女觀은 이제 2名으로 固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몇 명의 子女를 낳는 것이 가장 알맞다는 것을 提示하여야 할 것 임.
 - 胎兒性鑑別率에 대하여는 좀더 명확한 근거를 提示하여야 그 價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人工妊娠中絕은 터울조절목적으로 사용토록 자유화로 풀어주 고 副作用을 막는 裝置를 할 필요가 있음.
 - 妊娠婦들의 99.2%가 產前診斷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質 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超音波 檢查는 97.6%가 받은 經驗이 있으며, 施設分娩率은

98.8%로서 거의 대부분이 施設에서 分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높아짐.

- 帝王切開 分娩率이 31.5%에 이른다는 것은 醫師들이 이의를 提起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면밀히 再檢討하여야 할 것임.
 - 母乳授乳率이 1988年 48.1%에서 本 調查에서는 11.4%로 急落한 것은 政策的으로 問題시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資料의 再檢討가 요구됨.
 - 이는 年度別 비교시 基準時點에 의한 差異일수도 있으므로 調查資料에 대한 보다 면밀한 檢討와 期間을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할 것임.
 - 先天性代謝異常検査率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를 上昇 시킬수 있는 政策提示가 필요함.
 - 避妊實踐率이 77.4%로 나타났는 데 어느 정도의 避妊實踐水準이 適正水準인지 提示할 필요가 있음.
 - 이이즈 예방에 대한 知識 수준이 낮은 것은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教育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意味함.
- 4) 同 資料는 人口政策發展實務委員會에서 作成하고 있는 人口政策樹立 등에 매우 有用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으므로 統計廳의 調查結果 공표협의가 끝나는 대로 早速한 時日內에 報告書가 發刊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 1994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結果 要約 1부. 끝.